시작은 주춤, 마지막은 최상…2019 반전의 양현종

29경기 등판해 16승8패 평균자책점 2.29로 시즌 화려한 마감

4월까지 승리없이 5패 부진…5시즌 연속 180이닝 소화 '철완'

양현종(31 · KIA)이 반전의 2019시즌을 마쳤다. 시작은 주춤했으나 마지막은 그 어떤 선수보다 찬란했다.

양현종은 지난 17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경기에 선발등판해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무사사구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최소한의 임무를 소화한 채 등판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이날 등판을 끝으로 올 시즌을 마무리한다. 이미 적지 않은 이닝을 소화한데다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도 무산된 상태이기에 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로써 양현종은 29경기에 등판해 16승8패 평균자책점 2.29의 성적으로 이번 시즌을 마무리했다.

184⅔이닝을 던졌고 163개의 삼진을 잡았으며 총 22차례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다.

17일 기준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조시 린드블럼(두산 · 2.36)이다.

최상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한 양현종은 올 시즌 월별로 따졌을 때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뤘다.

3월 개막 후 두 번의 등판에서 2패 평균자책점 5.25를 기록하더니 4월에도 승리 없이 3패에 평균자책점 9.82로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꾸준히 선발로테이션을 지킨 양현종은 서서히 감각을 끌어올리며 5월에 4승2패 평균자책점 1.10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이어 6월 4승무패 1.69, 7월 3승1패 1.38, 8월 3승 0.51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9월에도 2승무패 1.35의 평균자책점으로 화려한 마무리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부진이 이어지자 우려의 시선이 많았으나 양현종은 이를 스스로 이겨내며 실력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이닝이터 본색도 유지했다.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리달성, 7시즌 연속 100이닝 이상 투구, 그리고 5시즌 연속 180이닝 소화라는 철완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 기간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발탁돼 중요한 역할도 수행했다.

무엇보다 팀과 프로야구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국내를 대표하는 투수로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달성한 양현종이지만 팀 성적을 위해 자신을 아끼는 법이 없었고 국가의 부름에도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섰다.

올 시즌 초반 KIA가 최하위에 떨어지며 위기에 직면하고 스스로도 부진을 거듭했으나 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고 결국 팀과 자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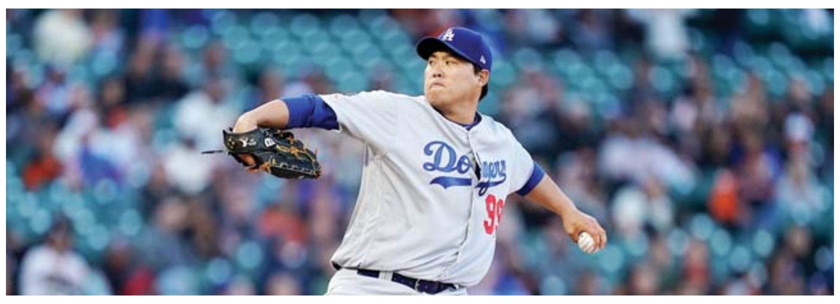
투철한 팬서비스 정신을 이어갔으며 슈퍼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소통, 친화적인 태도를 끝까지 잃지 않았다.

그 결과, KIA는 올 시즌 4년만에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르지 못하며 실패한 결과를 얻었으나 팀 성적 이외에 흥미 있는 볼거리와 자긍심을 선보일 수 있었다.

개인적인 시즌을 마감한 양현종의 시선은 이제 태극마크로 향한다. 오는 11월 열리는 제2회 프리미어12의 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김광현(SK)과 함께 여전히 국가대표 간판 투수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양현종은 시즌이 공식 마감 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뉴스1

美 매체, NL 디비전 시리즈 류현진 2선발 전망



"PS 활약 괜찮아"

류현진(32 · LA 다저스)이 2019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디비전 시리즈에서 2선발로 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스포츠매체 '디애슬레틱'은 19일(한국시간) 다저스의 디비전 시리즈 예상 로스터를 발표했다. 매체는 선발 투수로 클레이튼 커쇼, 류현진, 워커 뷸러 등이 차례로 등판할 것으로 예상했다.

디애슬레틱은 "순서는 변동이 가능하지만 이 3명의 투수가 선발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커쇼는 이번 시즌 팀의 가장 꾸준한 투수였고 류현진은 오랜 기간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뷸러는 한 경기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커쇼의 포스트시즌에서의 활약은 복잡하지만 생각만큼 나쁜 것은 아니다. 류현진도 7번의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에서 괜찮은 활약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통산 7번 포스트시즌 경기에 등판했다. 7경기에서 류현진은 2승2패 평균자책점 4.11의 성적을 남겼다.

그동안 류현진은 포스트시즌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2013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는 단 3이닝을 던지며 4실점했다. 하지만 같은 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역투하며 승리를 챙겼다.

2018년에도 마찬가지다. 류현진은 애틀랜타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해 7이닝 무실점으로 빼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는 각각 3이닝 5실점, 4⅔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다.

류현진은 2019시즌 다저스의 1선발로 맹활약을 펼쳐왔다. 현재까지 총 27경기에서 류현진은 12승5패 평균자책점 2.35의 성적을 기록하며 사이영상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7년 연속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성한 다저스는 3년 연속 월드시리즈 진출에 도전, 구단 통산 7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다. 포스트시즌에서 류현진이 정규시즌에서와 같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1

로테이션 교체 투입 손흥민, 레스터시티전 출격

레스터 상대 9경기 5골 3도움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1차전 후반에 교체 투입돼 20여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손흥민(27 · 토트넘 홋스퍼)이 주말 레스터시티전에 나선다.

토트넘은 오는 21일 오후 8시30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레스터시티와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토트넘은 19일 오전 열린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와의 UCL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손흥민의 체력안배 차원이었다.

이날 UCL 1차전에서 손흥민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뒤 후반 28분 투입돼 20여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은 승리하지 못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비롯해 주포 해리 케인 모두 이 경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마냥 실망만 할 순 없다. 포체티노 감독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말 레스터시티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후반 교체 투입되며 체력을 아낀 손흥민의 출장이 유력시된다.

손흥민은 '여우 군단' 레스터시티에 강했다. 지금까지 총 9차례 맞대결에서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2월10일 열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은 쐐기 골을 기록해 팀의 3-1 승리를 도왔다.